

데이빗리 목사

통일왕국반 교재



제 1 장 통일왕국시대 개론

1. 사건과 연대

년도	사건(성경)
BC1050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음(삼상 10장)
BC1040	다윗이 태어남
BC1025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음(삼상 16장)
BC1020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삼상 17장)
BC1010	사울의 죽음(삼상 31장)
BC1010	다윗이 두 지파를 통치함(삼하 2장)
BC1004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함(삼하 5장)
BC1003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삼하 5장)
BC991	다윗과 밋세바의 사건(삼하 11장)
BC979	압살롬의 반역(삼하 15-18장)
BC973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진노(삼하 21장)
BC970	다윗의 죽음(왕상 2장)
BC970	솔로몬의 왕위에 오름(왕상 1장)
BC966	성전 건축이 시작됨(왕상 6장)
BC959	성전 건축이 완성됨(왕상 6장)
BC931	솔로몬의 죽음(왕상 11장)

2. 시대적 배경

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길 원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단일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파별 자치 제도도 뚜렷치 않았던 사사 시대의 혼란을 청산하고 강력한 국가 운영에 적합한 왕정 체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기점으로 왕정시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정 체제라는 형식을 통하여 백성들 위에서 등신의 뜻을 대행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신정 왕국의 책임자로서 부적격한 것이 판명되어 그의 가문은 왕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후임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을 당신의 신정 왕국의 책임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다윗 언약으로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 다윗왕의 왕권은 세속적 왕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정 왕국의 영원한 왕권을 갖고 오실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3. 각 왕들에 대한 요약

사사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통일왕국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통일왕국시대에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들이 통치한 기간은 BC 1095년에서 975년 까지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사무엘상하 전체와 열왕기상 1-11장까지, 그리고 역대상에도 일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 사울 - 이스라엘의 초대 왕

-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4백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습니다.
- 사사 중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

지자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으며 젊었습니다. 사울은 40년간을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다소 수줍음이 있고 주저함이 있었던 성격이었으나 통치를 매우 잘 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번 이웃나라의 침입을 받았지만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 사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듯했습니다. 인기가 높을수록 겸손해야하건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교만한 사람의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사울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는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울은 결국 퇴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말렉 군대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의 멸망을 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삼상 15:22)"라는 말로써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시겠다고 결정하셨지만 얼마간은 계속해서 왕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악신이 임하였고 그는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병이 든 것입니다(삼하 16:14).
-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 뒤를 이을 왕을 찾으려 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삼상 15: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6:14]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신이 다윗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신이 다윗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신이 다윗에게서 떠나고

택한 왕임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왕의 기름부음을 부었습니다.

- 사울이 악신에 시달려 괴로워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왕궁에 들어오게 했고 다윗을 통해 그의 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윗은 곧 이어 일어났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사울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천부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친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너무나 깊은 친구관계였습니다.
-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되자 사울은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의 시기심은 다윗을 살인하려는 마음까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일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 다윗 -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유다왕국을 세웠습니다.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 남단 지역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다왕국을 세울 때에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 할아버지의 땅을 통치하도록 배려했지만 결국 7년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8년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택하였고 나라를 부강시켜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행 13:22)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점은 순종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망했

[행 13: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지만 다윗은 순종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다윗은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긴장을 풀리게 만들었고 마귀는 그런 그의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 그로 하여금 음란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밋세바와 통간하게 되었고 밋세바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곧바로 밋세바를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 밋세바 사건에 대한 형벌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겁탈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겁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밋세바에게서 얻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40년의 왕위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다. 솔로몬 - 성전과 우상을 함께 섬긴 자

-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번영기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왕의 덕분으로 주변에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시대를 누렸습니다.
-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잠언은 3천개나 되었으며 그의 시가는 1천개나 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그의 책 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잠언, 전도사, 아가서).
-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가장 크게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병거가 1400개였고 마병이 1만2천명이었습니다.
- 또한 그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다윗왕이 지으려고 준비했으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7년 만에 걸쳐 183,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



4. 세 왕이 차지한 영토 비교

제2장 왕을 주소서

1.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삼상 8:4-9). 사무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왕을 섬기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입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늙었을 때에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않습니까?

2. 사무엘은 왕의 제도로 인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삼상 8:10-17).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삼상 8: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삼상 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 지라

[삼상 8: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삼상 8: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 8: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삼상 8: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삼상 8:10]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 모든 말씀들을 일러

[삼상 8:11] 가로되 너희를 다스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세상의 왕을 섬길 때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천국에 필요한 것이지만 세상의 복은 세상의 정욕대로 사용될 것들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무엘은 왕의 제도로 인해 백성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상의 왕을 섬길 때 받는 복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받는 복의 차이를 말해봅시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더 좋아합니까?

3. 사무엘이 왕의 제도로 인해 당할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서 여전히 왕의 제도를 구축하길 원했습니다(삼상 8:18-20).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사무엘이 왕의 제도의 좋지 않

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삼상 8:12]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삼상 8:13]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떠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삼상 8:14]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삼상 8:15]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삼상 8:16]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삼상 8:17] 너희 양떼의 십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삼상 8:18]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삼상 8: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삼상 8:20]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은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는 누구의 미혹 때문입니까?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였으며 키가 다른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한 자였습니다(삼상 9:1-2).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람과의 관계 또한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울처럼 사랑하시며 예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다 여기시는 자녀입니까?

▶ (그룹제안) 사무엘은 왕의 제도로 인해 백성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상의 왕을 섬길 때 받는 복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받는 복의 차이를 말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더 좋아합니까?

[삼상 9:1] 베냐민 지파에 기스와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삼상 9:2]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울 때에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삼상 10:17-21).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선출될 때에 사무엘은 어떤 방식을 취하였습니까? 왜 제비뽑는 방식을 취하였을까요?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6.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삼상 10:22).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나는 사울처럼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대한 자입니까?

[삼상 10: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삼상 10: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삼상 10:19] 너희가 너희를 모은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삼상 10:20]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삼상 10:21]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 지라

[삼상 10: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 (그룹제안)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왜 사울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혹 당신에게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님은 당신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7.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섬길 왕임을 강조하였습니다(삼상 12:12-15).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무엘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경외치 않으며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삼상 12: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삼상 12:13]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삼상 12: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 마는

[삼상 12:15] 너희가 만일 여호와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와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제3장 사울왕의 불순종

1.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삼상 13:8-12). 이 일은 사무엘의 일이었지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울이 번제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아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거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 ▶ (그룹제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다급해졌을 때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은 사울과 같은 잘못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2.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삼상 13:13-14). 사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

[삼상 13:8]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흠어지는지라

[삼상 13:9]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삼상 13:10]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삼상 13:11]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흠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삼상 13: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대

[삼상 13: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뜻대로 전쟁을 감행했고 스스로의 뜻대로 번제의를 집행했습니다. 우리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슨 경고를 하였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런 경고를 받았을까요? 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고를 받을까요?

3.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삼상 15:1-3). 남녀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보면 충격적인 명령이고 너무 심하다 생각되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

[삼상 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상 15: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삼상 15: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삼상 15: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양과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지 못할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혹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까?

4.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삼상 15:7-11). 아말렉의 소유 중 일부를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후회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 일으키는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삼상 15:7] 사울이 하릴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삼상 15: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삼상 15: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삼상 15:10]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삼상 15:11]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고 말하였습니다(삼상 15:22-23). 또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순종치 못하고 완고하여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습니까?

▶ (그룹제안)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들은 책망은 무엇이었습니다? 혹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받은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요? 서로 나눠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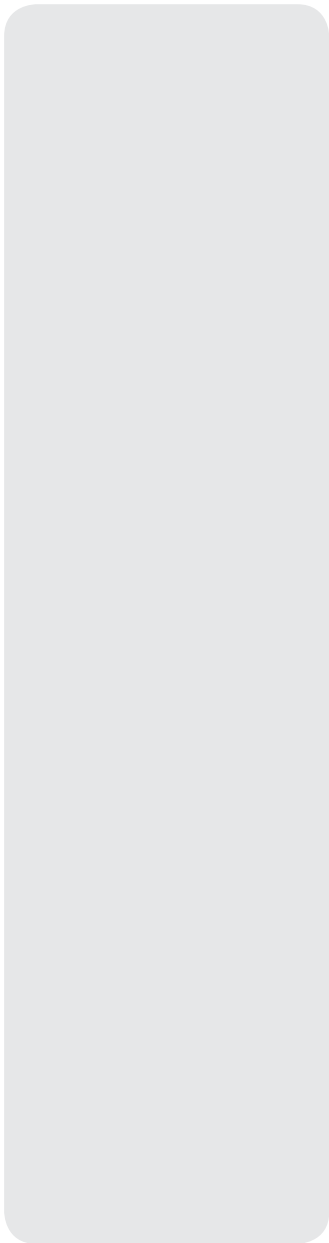
6.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고백했습니다(삼상 15:24).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 하는 것은 곧 세상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고백했습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리게 되는 것일까요? 혹 당신은 사람을 두려워 한 것

[삼상 15: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 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삼상 15: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 나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제 4 장 다윗과 사울의 비교

1.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볼 때에 맘에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말고 그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삼상 16:6-7).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중심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중심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을 찾아갔던 사무엘의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와 중심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당신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와 중심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왜 중심이 외모보다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삼상 16: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2.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삼상 16:11-12). 사무엘이 이렇게 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서 바라볼 때는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기 보
 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나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무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어
 떻혔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바라볼 때
 와 다윗을 바라볼 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외모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지
 금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3.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여호와
 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삼
 상 16:14).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악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써 악신이 내게 임하지 못하게 합니까?

[삼상 16:11] 또 이새에게 이르
 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
 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
 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
 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삼상 16: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더라 여
 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삼상 16:14]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
 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 (그룹제안) 여호와와 신이 사울을 떠났을 때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신(성령)이 떠날 때에 악신(귀신)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일까요? 혹 당신은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 귀신이 당신 안에 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4.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고 말하면서 나아갔습니다(삼상 17:45). 우리도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다윗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간증을 서로 나눠 봅시다.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5.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삼상 18:12).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악한 영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악한 세력이 근접지 못하게 합니까?

▶ (그룹제안) 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세상이 당신을 두려워한 체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6.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평생에 다윗을 두려워하며 대적이 되었습니다(삼상 18:28-29). 우리를 두려워하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자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까?

[삼상 18: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삼상 18: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삼상 18:29]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 (그룹제안) 왜 사울을 다윗을 두려워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7.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마침 굴 안에 있었던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권하였습니다(삼상 24:3-4).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삶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저들의 뜻일까요? 당신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8. 다윗은 용변을 보는 사울에게 다가가 조용히 사울의 겹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이 굴

[삼상 24:3] 길 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삼상 24:4]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에서 나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향해 자신이 걸옷자락만 베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삼상 24:7-10).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존중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은 사울에게 무어라 말하였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당신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 봅시다.

9.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갔으나 하나님께 불충스러운 삶을 살면서 갔습니다(삼상 31:1-5).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죽음의 길은 서로 다릅니다.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사울의 죽음은 슬픈 죽임이

[삼상 24: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삼상 24:8]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삼상 24:9]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삼상 24:10]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 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삼상 31:1]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삼상 31: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삼상 31: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 자라

[삼상 31:4]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없는 자들이 와서 나

있을까요? 값진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당
신은 참으로 의미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
니까?

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
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
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삼상 31:5]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
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
라

제5장 내 마음에 합한 자

1.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옷을 잡아 찢고 그와 함께 함께 한 사람과 함께 저녁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였습니다(삼하 1:11-12). 형제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슬퍼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당신은 형제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형제의 아픔에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삼하 1:1]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이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삼하 1:2] 제삼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2.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바아나와 레갑을 죽였습니다. 저들이 무고한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삼하 4:9-12).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를 갚으십니다. 나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바아나와 레갑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 나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 어떻게 행하십니까?

3.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민족을 이룬 후에 곧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그곳이 여부스 족속들이 거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삼하 5:6-10). 마땅히 이스라엘의 수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심령을 지니고 있습니까?

[삼하 4:9] 다윗이 브레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삼하 4:10]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삼하 4: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삼하 4:12]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어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삼하 5:6]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삼하 5:7]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삼하 5: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삼하 5:9]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

▶ (그룹제안) 다윗이 통일민족을 이룬 후에 곧 바로 함락했던 성은 무슨 성이었습니까? 왜 다윗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을까요? 당신의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심령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혹은 당신의 심령에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삼하 5:18-25).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훨씬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됩니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은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라
[삼하 5: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삼하 5:18]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 지라
[삼하 5:19]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삼하 5:20]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을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흘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삼하 5:21]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삼하 5:22]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 지라
[삼하 5:23]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삼하 5:24]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5.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은 옷사를 죽였을 때 다윗은 분하여 했습니다(삼하 6:3-8).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때때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옷사를 죽이셨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다윗처럼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6. 다윗은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너무 기뻐하여 온 힘을 다해 춤을 쳤습니다(삼하 6:12-15). 다윗이 이렇게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

[삼하 5:25] 이에 다윗이 여호와 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삼하 6:3]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옷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삼하 6:4]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삼하 6: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삼하 6:6]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삼하 6:7] 여호와 하나님은 옷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라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삼하 6:8] 여호와께서 옷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삼하 6:12] 후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삼하 6:13] 여호와와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을 취했습니까?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춤을 추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7. 미갈은 백성들과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보일 정도로 심하게 춤을 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미갈에게 하나님을 벌을 내리셔서 그녀로 하여금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삼하 12:16-21).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비난과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춤을 추는 자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이 기쁨의 춤을 췄을 때에 미갈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왜 미갈은 다윗의 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혹 당신은 미갈처럼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지

[삼하 6:14]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에봇을 입었더라

[삼하 6: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삼하 6:16]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삼하 6:17]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삼하 6: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삼하 6: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무론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삼하 6: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삼하 6: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는 있습니까? 혹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는 일들이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은 아닙니까?

8.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삼하 7:1-2).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이 평안이 궁에 거할 때에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당신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고백해 봅시다

9.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공과 의를 행하여 다스렸습니다(삼하 8:15).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의롭고 의로워야 합니다. 나는 매사에 공의롭고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

[삼하 7:1]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라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삼하 7: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삼하 8: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새

스렸습니까? 당신은 매사에 공의롭고 의롭게 행하고 있습니까?

10. 암몬의 하눈 왕은 다윗의 신복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이 엉덩이 부분까지 보이도록 잘랐습니다(삼하 10:4-5). 이는 저들에 대한 모독이며 다윗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몬 사람에 대해 분노하기 보다는 먼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신복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먼저 돌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상처를 돌보아보는 것보다 먼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암몬의 하눈 왕이 다윗의 신복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당한 상처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먼저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삼하 10:4]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삼하 10:5] 혹은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제5장 죄와 벌

1. 다윗은 왕들의 출전할 때에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왕궁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밋세바와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삼하 11:1-5).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되며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나는 늘 정결과 거룩을 유지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이 왕들의 출전할 때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죄를 짓게된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2. 다윗은 밋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밋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였습니다(삼하 11:6-9). 이는 밋세바의 잉태를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욕이 죄를 낳으며 그 죄는 장성하여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나는 어떤 죄를 감추기 위

[삼하 11:1]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삼하 11:2]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워 보이는지라

[삼하 11:3]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 이까

[삼하 11:4]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삼하 11:5]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삼하 11:6]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삼하 11:7]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삼하 11:8]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

해 다른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다윗은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까? 혹 당신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에 대해 체험담을 서로 나눠 봅시다.

3.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삼하 12:1-12).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며 지은 죄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은 죄값으로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당신은 지은 죄값으로 어떤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지라도 지은 죄값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삼하 11: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치라

[삼하 12: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삼하 12:2]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삼하 12:3] 가난한 자는 아무 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양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삼하 12: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삼하 12:5]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사람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삼하 12:6]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삼하 12: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4.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

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삼하 12:13).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즐겨 받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를 어떻게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 가운데 짓는 모든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다윗은 밋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였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죄에 대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5. 압살롬은 성문길 곁에 서서 왕께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직접 공의로 송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스스

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삼하 12: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우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삼하 12: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삼하 12: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삼하 12:11] 여호와께서 또 이 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삼하 12: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삼하 12: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삼하 15:1] 이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오십 명을 세우니라

[삼하 15: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

로 겸손한 척했으며 손을 펴서 그들을 껴안고 입을 맞춤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삼하 15:1-6).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옳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압살롬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까? 압살롬이 해서는 안 되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혹 당신의 유익을 위해 옳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삼하 18:9-15). 평소에는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머리털이었지만 결국은 그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악인은 아닙니까?

▶ (그룹제안)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당신 주변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악인이 있습니까? 혹 당신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악인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악인이 되지

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나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삼하 15:3]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삼하 15:4]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삼하 15:5]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삼하 15:6]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히니라

[삼하 18:9]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삼하 18: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삼하 18:11]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삼하 18: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압살롬의 죽음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보다 오히려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더욱 슬퍼했습니다(삼하 18:31-33). 이 세상의 그 어떤 승리가 가족의 불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가족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구스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어도 다윗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취하기 보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했을까요? 당신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욱 중요합니까?

8.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의 피난시절 때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나와 회개하였습니다. 군장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삼하 19:16-23).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명하셨습니다

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삼하 18:13]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삼하 18:14]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삼하 18:15] 요압의 병기를 말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처 죽이니라

[삼하 18: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삼하 18: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삼하 18: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나 아들이하였더라

[삼하 19:16]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삼하 19:17] 베냐민 사람 일천 명이 저와 함께 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열다섯과 중

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은 피난 시절 때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져 욕보였던 시므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신 인생에 시므이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다윗처럼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9.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 때에 이스라엘 지파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삼하 19:40-43). 누가 먼저 왕을 맞이하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도망칠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서도 이제 되돌아오니 서로 다윗 왕과 가까워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정욕으로 형제의 것을 탐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에게 양보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이 돌아올 때에 왜 이스라엘 지파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무엇때문에 형제와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무 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삼하 19:18]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었드려

[삼하 19:19]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삼하 19:20]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삼하 19: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삼하 19:22]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삼하 19:23]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삼하 19:40] 왕이 길갈로 건너 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삼하 19:41]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넜었나이까 하매

까?

10.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간의 다툼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세바라 하는 자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삼하 20:1-2). 이스라엘 지파간의 다툼은 압살롬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나는 형제와의 다툼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지파간의 다툼은 무슨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왜 다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혹 당신의 삶 가운데 다툼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던 적이 있습니까?

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라 저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여 다윗의 마음에 죄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탄에 의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죄

[삼하 19:42]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삼하 19:43]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심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멀리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삼하 20:1]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삼하 20:2]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삼하 24: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라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삼하 24:1). 우리의 짓는 죄는 사탄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짓는 모든 죄가 사탄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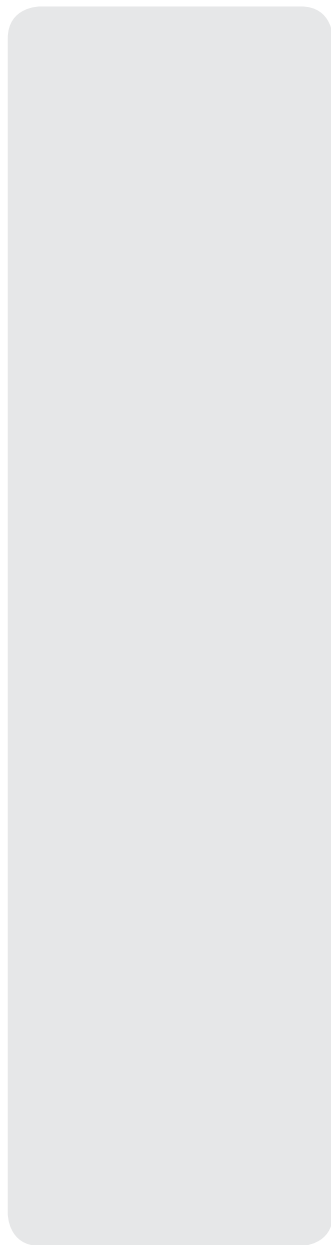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저들을 치려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으로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짓고 있는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12.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자신이 모든 재앙을 불러 일으킨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삼하 24:17). 다윗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죄에 대해 잘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바라봄으로써 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실 때에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때에 당신은 그 형벌의 중함을 상세히 보고 있습니까?

[삼하 24: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삽거니와 이 앙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형벌을 내리는 천사의 모습을 본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도와주었을까요?



제 6 장 우상들과 함께 한 성전

1. 다윗 왕은 이전에 밋세바와 약조한대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왕상 1:28-31). 우리는 사람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맺은 약속을 지켜 맹세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다윗 왕은 밋세바와의 어떤 약속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사람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2.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였습니다(왕상 3:1). 솔로몬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

[왕상 1:28]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밋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자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상 1:29]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왕상 1:30]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왕상 1:31] 밋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상 3:1]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와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역되기를 기다리니라

하기 이전에 행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존재하는 애굽의 딸은 무엇입니까?

3.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였습니다(왕상 3:5-10).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만일 당신이라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4.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결했습니다(왕상 3:16-27). 진짜 어머니라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

[왕상 3: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왕상 3:6]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왕상 3: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상 3:8] 주의 빠른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왕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왕상 3:16]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왕상 3:17]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왕상 3:18] 나의 해산한 지 삼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왕상 3:19]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왕상 3:20]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은 사이에 내

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솔로몬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판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5.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왕상 6:11-13).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

이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왕상 3:21]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첫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하매

[왕상 3:22]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상 3:23]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상 3:24]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상 3:25]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왕상 3: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상 3:27]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왕상 3:28]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6.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입니다(왕상 7:21).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란 의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의 이름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7.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왕상 7:23). 이 바다는 물두멍에 쓰일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결과 거룩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왕상 6:11]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왕상 6:12]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왕상 6:13]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왕상 7:21]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왕상 7:23]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가 있었을까요? 당신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더럽게 만 들고 있습니까?

8.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왕상 8:9). 돌판 옆에 있었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는 분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언약궤에 남아 있는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신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반원들에게 고백해 봅시다.

9.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참으로 인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왕상 8:9]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 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왕상 8:10-11).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악한 세력이 조금도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여호와와의 전에 섬기던 제사장이 능히 서 있지 못했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왕상 8:33-34).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할 때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빌며 간구할 때 죄를 사하시고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나는 지은 죄를 인식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와의 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영광이 여호와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왕상 8:33]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왕상 8:34]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 (그룹제안) 솔로몬은 백성이 죄로 인해 적국에 패하므로 성전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길 원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당신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11. 하나님은 솔로몬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때 그 왕위가 후손대대로 강하여지며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왕상 9:3-7). 이러한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은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얻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혹 당신

[왕상 9:3] 저에게 이르시되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있으리니

[왕상 9:4]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상 9: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왕상 9:6]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왕상 9:7]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

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받은 형벌은 무엇입니까?

12. 솔로몬의 재산이 심히 많을 때에 그가 애굽에서 말들을 사왔습니다(왕상 10:26-29). 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 (그룹제안) 솔로몬의 재산이 심히 많아졌을 때 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혹은 당신은 솔로몬과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13.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처와 첩을 두었는데 후비가 칠백이요 빈장이 삼백이나 되었습니다(왕상 11:1-8).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고 이방 우상들을 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좇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상을 좇게 만

거리가 될 것이며

[왕상 10:26]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일천사백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상 10: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왕상 10:28]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왕상 10:29]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일백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헛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왕상 11: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상 11:2]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너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상 11:3] 왕은 후비가 칠백인이요 빈장이 삼백 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룹제안)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취한 이 방 여인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범케하였습니까? 혹 당신으로 하여금 우상을 좇도록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상을 좇지 않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4.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섬김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그의 신복에게 넘겨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왕상 11:9-13).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나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솔로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15.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

[왕상 11:4]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왕상 11: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딸들을 좇음이라

[왕상 11:6]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 같이 좇지 아니하고

[왕상 11: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왕상 11:8]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왕상 11:9]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왕상 11:10]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상 11: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왕상 11:12]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왕상 11: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기때문입니다(왕상 11:33).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더 섬길 경우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김으로써 뭔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당신도 솔로몬처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김으로써 뭔가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나의 뺨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왕상 11:33]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